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흑염소’ 브랜드 정착 나선다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추진 신규 인증 농가에 심사비용 전액 지원

완도군이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및 흑염소’ 브랜드 정착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신청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인

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우 번식 농가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인증 기간 동안 출하한 농가에는 출하 가축 장려금을 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경우 1년 단위로 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 관리를 추구하는 농장을 말한다.

작년 한 해 완도군의 친환경 축산물 인

증 농가는 37농가이고, 인증 농가 모두 인증비용 전액 지원과 27농가(279두)가 출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식 부족으로 인증 농가 실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농가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두당 최대 30만 원), 생균제 공급, 송아지 설사 예방약 공급, 수분조절제를 2배 이상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한 농가 지도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흑염소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완도군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및 흑염소’ 브랜드 정착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강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내일부터 3일간 조계사 경내서 진행

강진군은 2일부터 3일간 조계사 경내에서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서울 종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사찰로 도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탐방의 1번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계사와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특별한 만남은 지난 2012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올해 7번째 매년 2-3차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진농수특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직거래사업단이 중심이 돼 10개 생산조직에서 쌀, 잡곡, 버섯, 김, 미역 등 70여 개 품목을 시장가보다 10~2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해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소포장 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구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고마운 분들에게 강진산 농특산물로 마음을 표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리고 행사당일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농산물 샘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전운재 기자 wjzun@

해남,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국비 확보 “안전·편하게 고향 가요”...천사대교 임시개통

북부분소 신규 설치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진용 갖춰

해남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를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 연내 개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도·군비 등 총 17억원이 투입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사무실,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27기종 95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해남읍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나 문내면 서부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산이, 황산, 마산 등 면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2005년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서부사업소 개소, 2015년 남부 사업소 개소에 이어 올해 북부분소를 개소함으로써 4개소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갖추게 됐다.

해남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명원관 해남군수가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한데 이어 올 1월에도 예산 및 사업담당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해남은 경지면적 전국 1위(350.6km²)로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해결은 물론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없는 농기계 임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신안, 설 연휴기간 귀성객 교통편의 제공

신안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동안 천사대교 임시 개통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집 방문하도록 버스, 여객선, 비상근무자를 전진 배치해 귀성객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천사대교 정식 개통에 앞서 임시개통(1일~7일) 기간 동안 교통 흐름을 파악·보완해 정식개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임시 개통 기간 동안 4개 읍·면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귀성

객의 불편이 없도록 먼저, 일 6회 공영버스 임시운행 ‘신안암태(남강)←목포버스 터미널←목포역’ 및 일 4회 암태←광주간 시외버스(금호고속)를 운행한다.

또한 신안군은 비상 근무자에 대해 교역을 실시, 오는 6일까지 공무원 374명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눈이 그린 수목화

기해년 1월의 마지막 날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남쪽지락 광활한 녹차 밭이 겨우내 보기 힘들었던 거센 눈보라를 뒤집어 써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강진=전운재 기자 wjzun@

영암 서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영암군 서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특화사업인 저소득층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호면 지사협 위원 19명은 식사가 어려워 반찬지원이 필요한 50가구를 선정해 위원들이 준비한 고동어, 계란, 만두, 생필품 등을 가지고 가정방문해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양은숙 공공위원장은 “바쁜가운데 참여 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무안, 군민·시장 상인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거리 홍보

무안군은 민족 명절 설을 맞아 최근 무안읍 전통시장에서 군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 시켜주는 ‘지적재조사사업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으로 인한 지적불합치와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현실경계와 일치하는 정밀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불확실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사업지구로 무안을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전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24시 콧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